

조선시대 黃澗縣의 士族動向

고수연 *

-
- I. 머리말
 - II. 조선전기 黃澗縣의 성씨와 인물
 - 1. 地理誌 분석을 통해 본 성씨와 인물
 - 2. 鄉校를 통해 본 인물의 활동
 - 3. 倭賊의 침입과 황간현 인물
 - III. 조선후기 黃澗縣 士族의 성장과 활동
 - 1. 姓氏 기록의 변화
 - 2. 書院 건립과 활동
 - IV. 맺음말
-

I. 머리말

충청도 황간현은 조선시대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 秋風嶺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老論의 領袖 宋時烈이 10여 년간 머물면서 北伐을 구상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조선시대 사족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역인 것이다. 그런데 황간현의 조선시대 사족 연구는 전무하다.

黃澗縣¹⁾에는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 교육기구인 黃澗鄉校가 존재하

* 영동대학교 교양융합학부

1) 황간현은 현재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추풍령면·매곡면·상촌면 일대이다.

여 강학과 제향을 담당하였으며, 사립교육기관인 寒泉書院·松溪書院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많은 書堂들이 운영되었고, 많은 忠·孝·烈 정려들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본다면 다른 군현과 마찬가지로 황간현의 사족활동 역시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지리지와 향교 및 서원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 황간현 사족의 동향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II. 조선전기 黃澗縣의 성씨와 인물

1. 地理誌 분석을 통해 본 성씨와 인물

조선전기 황간현을 이끌어 갔던 지역 세력으로는 크게 고려 이래의 토착향리 세력인 土姓과 吏族·土族으로 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移居土族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영동현을 대표하던 성씨 세력과 인물들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世宗實錄』 「地理誌」(1454년)와 『新增東國輿地勝覽』(1481년~1530년)을 들 수 있다.

표 1.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황간현 성씨조와 인물조

구분	『世宗實錄』 「地理誌」 (1454년)	『新增東國輿地勝覽』 (1481-1530년)	『新增東國輿地勝覽』 인물
土姓	韓·甄·孫·郭·沈·全	韓·甄·郭·沈·全· 孫·白	【名宦】本朝 尹祥, 河澹, 李約束 【孝子】本朝 梅漢孫
亡來姓	白		
續姓	李·金	李·金	
金化 續姓	林	林	

<표 1>을 참조하여 조선전기 황간현의 성씨를 살펴보면 우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土姓으로 韓·甄·孫·郭·沈·全씨가 기록되어 있고, 亡來姓으로는 白씨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亡來姓으로 기록되어 있던 백씨가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순서도 韓·甄·郭·沈·全·孫·白씨로 바뀌어 있다.

백씨가 토성으로 기록된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 기록이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당시보다 토착적 의미의 토성에 대한 관념이 무의미해지면서 토성과 망래성이 혼용되어 기록되어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성씨의 순서가 바뀐 것은 성씨의 세력 판도의 변화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던 孫씨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6번째로 기록되어 있어, 16세기로 들어오면서 세력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續姓으로 李·金씨가 기록되어 있다. 속성은 고려시대의 성씨관련 문헌에는 없고, 그 대신 15세기 지리지 편찬 당시에 각 도의 보고서에 기재된 성씨를 말한다. 따라서 속성은 來姓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옮겨와 정착한 성씨를 말한다. 바로 황간현에서는 李·金씨와 금화부곡의 林씨가 14, 15세기에 영동으로 이거한 대표적 성씨인 것이다.

황간현의 인물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名宦으로 조선의 尹祥·河澹·李約束을 기록하고 있으며, 효자로는 조선의 梅漢孫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윤상과 하섬·이약동은 모두 재지성씨가 아니라 명환, 즉 황간현감을 지낸 인물이다. 『여지도서』 명환조에 또 역시 “본조 尹祥·河澹·李約束은 정사하는데 淸簡한 것을 숭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장 먼저 기록된 尹祥(1373년~1455년)은 본관은 醴泉이고, 호는 別洞이다. 아버지는 예천군의 향리인 善이다. 향리의 아들로 태어나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양반 신분에 올랐던 것이다. 鄭夢周의 문인으로

성리학에 밝은 趙庸이 1392년(태조 1)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반대해 예천에 유배되어오자, 윤상은 趙末生·裴杠 등과 함께 수업을 받으면서 조용의 문인이 되었다. 윤상은 1396년 24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자 외직을 청해 1448년 이전 어느 즈음에 황간현감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河澹은 본관 晉陽으로 1402년(태종 2)에 문과에 합격한 인물이다. 1403년에 황간현감을 지낸 하담은 황간의 추풍령 바로 밑의 嶺路 변에 위치한 駕鶴樓(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 22호)를 짓기도 하였다.

李約東(1416년~1493년)의 본관은 碧珍이고, 호는 老村이다. 金宗直·曹偉 등과 교분이 깊었다. 1451년(문종 1) 문과에 급제한 뒤 1454년(단종 2) 황간현감을 역임하였다.

효자조에 기록되어 있는 매한손은 황간현의 16세기 초엽의 인물로 효성이 지극하였다. 『여지도서』 효자조에 “본조 梅漢孫은 그 아버지가 惡疾에 걸리자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서 바쳤더니 병이 나왔다. 今上(중종) 14년에 정문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519년(중종 14)에 세운 정려가 매곡면 노천리에 아직까지 전하고 있다.

2. 鄉校를 통해 본 인물의 활동

1) 黃澗鄉校를 통한 교육의 참여

불교 대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려던 조선은 崇儒抑佛 사상의 형성을 위한 유학 교육기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風化之源’으로서의 유학 교육기관인 향교 건립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인종 대 이후 향교는 존재했으나 일부 군현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향교건립이 장려되면서 ‘一邑一校’ 원칙에 향교는 따라 모든 군현에 설립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황간현에도 1394년 창건된 이래 황간향교가 조선시대 내내 존재하였다.

향교는 교육뿐 아니라, 선현에 대한 제향과 향촌교화까지 담당한 지역 사족세력의 집결소였다. 이러한 향교에 조선전기를 대표하던 영동현의 성씨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1641년(인조 19) 『학교등록』 기사에 황간현 양반자제를 무조건 향교에 입학시키라는 명, 향교 훈도를 그 지역에서 그 문장이 구비된 자로 뽑아 교생들을 가르치게 하라는 명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후기 황간사족들은 황간향교의 학생과 선생님이로 교육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黃澗鄉校의 창건과 이건에 참여

황간향교가 처음 창건된 1394년(태조 3)으로 황간현 치소 뒷산에 마련되었다. 그러던 것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난 1666년(현종 7)에 본래 향교터로부터 서쪽으로 2리 떨어진 土城 안으로 이건하였다. 이 위치가 현재의 황간향교 위치인 황간면 남성리 150-1이다.

이후 1752년(영조 28)과 1755년에 각각 중수하였으며, 1872년(고종 9)에 명륜당을 중수하고, 1901년 다시 중수하였다.

황간향교는 한번의 이건과 수차례의 중건이 있었는데, 이때 당연히 황간현의 사족이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5칸의 대성전, 5칸의 명륜당, 庫直舍 등이 남아있다. 초석이 蓮花文으로 조각된 것으로 보아, 사원 건축양식과 정자·주택 건축양식이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대성전에는 五聖, 宋朝四賢, 우리나라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3. 倭賊의 침입과 황간현 인물

황간현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진격로로서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제3진은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1568

년~1623년)의 지휘로 西路인 右道를 따라 김해·성주·금산·추풍령을 넘어 황간·영동·옥천을 거쳐 청주를 지나 죽산·용인을 통해 서울로 진입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추풍령을 중심으로 황간현에는 많은 의병활동이 있었다.

황간현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은 황간현 출신의 무신 장지현을 들 수 있다. 1393년 왜장 구로다가 이끄는 2만군과 모오리가 이끄는 3만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다. 이때 당시 경상도관찰사 윤선각의 비장으로 있던 張智賢(1536년~1593년)은 지형적 요지인 황간 추풍령에 진을 치기로 결정한다. 그리하여 소백산맥의 험준한 계곡이 뻗어 내린 추풍령 당마루 양 계곡에 전초진을 구축하고, 제2방어선으로 황간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오룡산(지금의 사부리)에 배수진을 치게 하였다. 그리고 전초진 당마루 계곡이 천혜의 요새인 점을 이용하여 왜군과 맞서 싸워 이겼다. 오룡동 패고정은 당시 그 전과를 전하고 있다.

그 후 왜적은 다시 4만 명이 넘는 대병력으로 추풍령을 넘어 재차 공격해 와 2차 방어선인 오룡동 진지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져, 결국 장지현을 비롯한 많은 의병들이 순절한다. 나라에서 장지현에게 병조참의를 추증하고, 오룡산인 현 추풍령면 사부리에 충절사를 세워 그의 공을 추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황간출신의 무신 南守一(1565년~?)이 의병을 모아 황간현으로 왜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원종공신 2등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Ⅲ. 조선후기 황간현 사족의 성장과 활동

1. 姓氏 기록의 변화

조선후기에 들어서서 지역의 성씨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1759년에서 1765년 사이에 편찬된 『輿地圖書』를 들 수 있다. 『여지도

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된 지 270여 년이나 지나자, 이것을 다시 고치고 그 동안 달라진 내용을 신기 위해서 편찬되었기에 그 간의 변화상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여지도서』의 황간현 성씨조이다.

표 2. 『여지도서』(1759년~1765년) 황간현 성씨조

조항	성씨	내 용
성씨조	甄	土姓 參軍 胤世之後
	安	順興人 府院君 景恭之後
	南	固城人 判書 琴之後
	吳	蔚山人 清白吏 湜之後
	朴	忠源人 清白史 孝誠之後
	李	月城人 益齋 齊賢之後
	朴	密陽人 蘭溪 堧之後
	閔	驪興人 掌令 渙之後
	徐	坡平人 判書 仲夏之後
	南	宜寧人 司正 暉之後
	李	全州人 恭靖 大王之後
	沈	青松人 生員 桀之後
	李	丹陽人 右相 茂之後
	郭	一善人 正字 諶之後
	李	全義人 縣監 碩聖之後
	朴	密陽人 友贊成 剛生之後
	崔	和順人 忠節公 永儒之後
	孫	密陽人 勿齋 舜孝之後
李	碧珍人 平靖公 約東之後	
崔	永川人 提學 興孝之後	

『여지도서』 성씨조에는 황간현 사족의 성씨와 본관, 그리고 입향조가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를 조선전기 자료인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해 본다면 토성조 제일 앞에 있던 韓씨가 없어졌으며, 토성조 全씨와 白씨, 속성인 金씨도 없어졌다. 대신 순흥안씨, 고성남씨, 울산오씨, 충원박씨, 밀양박씨, 여흥민씨, 파평서씨, 의령남씨, 영천최씨가 조선후기 황간지역의 새로운 성씨로 등장

하고 있다.

다음은 『여지도서』 황간현 인물조의 기록이다.

표 3. 『여지도서』 (1759년~1765년) 황간현 인물조

분류	인명(내용)
功臣	南守一(壬辰變以判官參二等功臣 甲子活變以縣令參一等功臣 前後有二卷功臣錄)
孝子	梅漢孫(父淳惡 疾斷指以愈 中宗朝旌闕) 朴應勳(號梧村 丁憂廬墓山君詆瘡 宣祖朝旌闕) 朴起祥(蘭壤之後 幼時虎攫其父號叱乃捨 顯宗朝旌闕) 朱國連(磨造匠人 父母之病斷指以愈 孝宗朝旌闕)
烈女	種 德(夫死四百里外自負 而葬青年守節 明宗朝旌闕) 鄭霖妻南氏(斷脂截髮納于夫棺自少至老製夫冬夏衣 祭以焚之 宣祖朝旌闕) 孫貴男妻李召史(其夫戰亡於丙子認屍 而斷指納于棺夫死守節 肅宗朝旌闕) 朴守玄妻金氏(夫死後死 肅宗朝旌闕) 李恒德妾朴姓(夫死後死 今上朝旌闕)

『여지도서』 인물조 공신에는 앞서 기술한 임진왜란 당시 판관으로써 2등 공신에 오른 南守一(1565년~?)이 기록되어 있다. 남수일은 본관은 고성으로, 1624년 이괄의 난때도 출정하여 원수 장만 막하에서 공을 세워 1625년에 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여지도서』 인물조 효자조에는 梅漢孫과 朴應勳·朴起祥·朱國連이 기록되어 있다. 매향손은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주혈하여, 아버지를 살려 증중조에 정려를 받은 인물이다.

박응훈은 16세기 말엽 인물로 호는 오촌, 본관은 충주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는 효로 모셨으며, 돌아가시자 시묘살이를 하여 1601년(선조 34)에 정려를 명받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내동에 정려문이 세워져 전해온다. 또 박응훈은 송계서원에도 향사되었으며 우암 송시열이 향사 축문을 짓기도 하였다.

박기상은 어릴 때 호랑이가 아버지를 붙잡자 호랑이를 꾸짖어 아버지를 살린 효자로 현종조에 정려를 받았다.

주국련은 磨造匠人으로 부모의 병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드려

병을 낫게 하여 효종조에 정려를 받았다.

『여지도서』 인물조 열녀조에는 種德·鄭霖妻南氏·孫貴男妻李召史·朴守玄妻金氏·李恒德妻朴姓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명종 조에 정려 받은 種德은 16세기 중엽의 인물로, 그 남편이 항상 남을 대신하여 형장을 맞아주고 돈을 받아서 살아오다가 마침내 해미읍에서 죽었다. 그러자 종덕은 해미로 가서 시신을 업고 황간까지 와서 장사지냈다고 한다. 당시 그녀의 모습이 젊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를 탐내자 등곡산에 들어가 바위에 의지하고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

다음은 선조조에 정려 받은 鄭霖 妻 南氏이다. 16세기 중엽의 인물이다. 남씨는 정임의 아내로 남편이 임종할 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이고 머리카락을 잘라 관속에 넣었다.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남편의 겨울옷과 여름옷을 지어놓고 제사지낸 다음에 태우곤 하였다. 명종 때 정려 되었다.

세 번째로 숙종조에 정려 받은 孫貴男 妻 李召史가 기록되어 있다. 이소사는 그 남편이 병자호란때 전사하자 시신을 찾아서 돌아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관에 넣고 죽을때 까지 수절하였다.

네 번째 기록된 朴守玄 妻 金氏 역시 숙종조에 정려를 받은 인물로 남편이 죽자 따라 죽었으며, 다섯 번째 기록된 李恒德 妻 朴姓도 남편이 죽자 따라 죽어 영조조에 정려를 받았다.

2. 書院 건립과 활동

1) 松溪書院

송계서원은 1664년(현종 5)에 매곡면 수원리 원촌마을에 건립되었으며 梅溪 曹偉·松堂 朴英·巖亭 金始昌·梧村 朴應勳 4人을 제향하였다. 1707년(숙종 33) 三槐堂 南知言·一石 朴惟棟 2人을 追享하였다.

송계서원은 주향급인 曹偉·朴英 등이 金宗直·金宏弼 등에 學問的

淵源을 가지고 있어 일견 嶺南系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조위·박영 등은 黃澗과의 인연이 있는 先賢의 자격으로 제향된 것이고 실제로는 湖西士林의 지원 하에 건립된 畿湖系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1726년에 ‘松溪’라는 사액을 받았는데, 같은 황간현의 유일한 서원인 한천서원 역시 1726년 사액을 받는다. 1868년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철폐되었다.

2) 寒泉書院

한천서원은 1717년(숙종 43) 황간면 원촌리(현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50)에 건립되어 尤庵 宋時烈(1607년~1689년)을 獨享하고 있는 곳이다. 1726년(영조 2)에 ‘寒泉’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송시열은 황간이 고향은 아니나 황간에서 가까운 옥천군 동이면 구룡촌에서 태어나 평소 황간을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열읍원우사적』 「한천서원 봉안제문」에 보면 황간은 단순히 송시열이 드나들던 곳이 아니라 晩年에 10여 년간 머물면서 강학하여 문인들을 가르쳤던 곳이다. 사실 송시열이 황간과 인연을 맺은 것은 훨씬 전의 일이다. 32세가 되던 1638년(인조 16)에 송시열은 황간 원촌리의 월류봉 밑 냉천에 한천초당을 짓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되새기며, 10여 년간 머물면서 북벌을 구상했던 것이다.

『열읍원우사적』 「한천서원 봉안제문」에도 ‘이곳 냉천은 송시열이 수년간 은거하며 즐기던 곳으로, 어느 곳이던 그 족적이 남아 있으며 특히 화양과 비교해도 체모가 같은데 본 읍(황간)이 쇠잔하고 무력하여 오랫동안 세우지 못하다가 비로서 신궁을 창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寒泉書院의 구체적인 건립과정을 보면 송시열의 제자인 朴守默 등 황간읍 儒生들이 당시 충청감사인 尹憲住에게 건의함으로써 창건된다. 물론 추진은 황간현의 鄕人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大老라 불리는 송

시열의 제향인만큼 실제 건립의 배후에는 노론계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서원완공 후 嫡傳인 權尙夏가 奉安祭文을 지었고 노론거두 李緯가 顯詠을 撰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권상하나 이재 외에도 황간유생 朴漢舒²⁾가 올린 상량문을 보면 ‘相公·觀察使·守丞 등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 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권상하와 이재 외에도 상공이라 지칭되는 또 다른 노론거유의 후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중앙실력자들의 직접적인 독려를 접하며 소재지의 監司와 수령들이 방관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며, 이 같은 분위기 아래서 寒泉書院의 건립이 이루어졌고 또 英祖 初年 사액까지 내려진 것으로 보여진다.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에 훼손된 뒤 복원하지 못하였다. 현재는 1875년(고종 12)에 건립한 永同宋尤庵遺墟碑와 1955년 건립한 寒泉精舍만 남아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지리지 검토와 서원·향교를 건립 및 활동을 통하여 조선시대 황간현 사족 동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황간현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등 지리지에 학행이 있는 지역인물이 기록된 인물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중앙정계에서 활약한 두드러지는 황간 지역의 學人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원과 향교, 서당이 존재하여 유지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지역 내에서 사족 가문의 활동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황간의 사족 동향 중에 주목되는 것은 1638년(인조 16) 송시열이 황간 원촌리에 한천초당을 지어놓고 이후 10년간 머물며 북벌을

2) 박한서는 宋時烈의 復享, 宋時烈의 追奪을 稟處하라는 명의 환수 등을 청하는 尹侃 등의 상소 에도 가담하였다. (『경종실록』 4년 4월 24일(정묘))

구상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1717년(숙종 43)에 이를 유지로 한천서원은 건립되고, 1726년(영조 2)에 사액까지 받는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황간현에서는 서인-노론계열 가문들의 사족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지역사 자료와 문집을 바탕으로 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후일을 기약한다.

[논문접수:2012.10.26, 심사시작:2012.11.12, 심사완료:2012.11.20]

주제어 : 士族, 黃澗縣, 地理誌, 黃澗鄉校, 松溪書院, 寒泉書院

【參考文獻】

- 『典故大方』, 『俎豆錄』, 『學校謄錄』,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列邑院宇事蹟』
전용우, 『湖西士林 形成에 대한 研究』, 충남대박사학위논문. 1994

<ABSTRACT>

The Trend of Sajok in Hwangganhyun

Go, soo-seon

This thesis analyses Hwangganhyun Sajok through examination of topographies, the establishment of Seowon and Hyanggyo in there, and the residents' practice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Consequently, Hwangganhyun is noteworthy in its lack of renowned scholarship in historical records and topographies like *Sinjeungdonggukyoejiseungram* or *Yoejidoseo*. It signifies that Hwanggan region had few scholars who actively worked in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 reg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like Seowon, Hyanggyo, and Seodang existed and were maintained; the fact reflects that Sajoks in Hwangganhyun continually lingered their scholarship.

The most attention-grasping anecdote of Hwanggan Sajok is that Siyul Song built Hanchunchodang in Hwanggan Wonchonrhee in 1638 (the 16th year of King Injoh's reign), and he stayed there for ten years, planning the Northern Conquest. Later then, Hanchunseowon was founded in 1717 (the 43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based on the chodang, and it even received Sa-ek in 1726 (the 2nd year of King Youngjo). It became the trigger for the activity of Sajok of Seoin-Nohron party in Hwangganhyun.

The study would be much thoroughly developed if more various local documents and writings are also examined, and I am looking

forward other scholars and students would expand it.

Keywords : Sajok, Hwangganhyun Sajok, Examination of topographies, Hwanggan Hyanggyo, Sounggye Seowon, Hanchun Seowon.